

[로스쿨 소식]

## 2023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3193명 응시

- 지난해보다 571명 증가...매년 증가세

- 8월 24일 오전 10시 성적 발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3학년도 법학 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3193명이 응시했다.

학년도	지원자(명)	응시자(명)	응시율(%)
2009학년도	10,960	9,690	88.4
2010학년도	8,428	7,411	87.9
2011학년도	8,518	7,625	89.5
2012학년도	8,796	7,945	90.3
2013학년도	7,628	6,980	91.5
2014학년도	9,126	8,387	93.5
2015학년도	8,788	8,114	92.3
2016학년도	8,246	7,585	92.0
2017학년도	8,838	8,110	91.8
2018학년도	15,206	9,408	92.2
2019학년도	15,502	9,740	92.7
2020학년도	11,161	10,291	92.2
2021학년도	12,244	11,150	91.1
2022학년도	13,955	12,622	90.4
2023학년도	14,620	13,193	90.2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4일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 9개 지구 31개교 시행기관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4620명이 지원하고

1만3193명이 응시해 90.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571명 많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서울 9366명, 수원 956명, 부산 870명, 대구 644명, 대전 569명, 광주 363명, 전주 243명, 춘천 108명, 제주 74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총 68명이었다. 이들은 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된 코로나 확진자 특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또 이번 시험에는 시각장애인 8명, 지체장애인 8명, 뇌병변 장애인 5명, 기타 26명 등 수험생 47명이 편의 지원을 받았다. 시각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별도로 제작된 점자 문제지, 음성지원, 확대 문제지와 눈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됐다.

한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된 수험생들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장애로 배려가 필요한 수험생들에게는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성적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에 발표될 예정이다.